

2024-11-25 (2024-46호)

11월 25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강달러 가속과 올해 마지막 금통위..MSCI 리밸런싱 리스크까지

서울, 11월2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 전개양상에 따른 글로벌 달러 향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리밸런싱을 포함한 월말수급 등 여러 재료를 소화하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85-1420원이다.

글로벌 달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달러지수는 한때 108선을 터치해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후 확산된 달러 강세에 주요국 통화들은 약세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강달러에 맞설 통화가 딱히 부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만이 달러와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약세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 부근에선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약세 흐름은 제한되지만, 대외 상황 따라 언제든지 약세 변동성을 키울 태세다.

10월부터 두 달간 쉼 없이 상승한 달러가 11월 말 차익실현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근 2개월간 달러지수는 약 6% 이상 올랐다. 만약 달러의 리밸런싱이 관측될 경우 달러/원도 잠시 레벨을 낮추려 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는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말이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의 반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달러/원 레벨 낮추기 시도는 더욱 짧게 끝날 수도 있다.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오는 28일 휴장하고 29일에는 조기 폐장하는 일정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주 초인 25일은 11월 MSCI 반기 리뷰에 따른 리밸런싱일로 원화가 일시적인 수급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리밸런싱으로 한국 비중 감소 결과 약 9천억원 상당의 매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수급 변수에 월말 수급이 일시적이거나 풀릴 위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주 중 미국 10월 개인소비자지출(PCE)가격지수와 11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록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연준 금리 전망에 대한 시장 반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12월 연준 정책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52.7%로 반영돼 한달 전 69.5%에서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로 금리 결정 결과를 비롯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정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보다 불확실해진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와 상승세를 재개한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 이로 인해 1400원대로 치솟은 달러/원 환율과 확실히 꺾이지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은 이번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는다.

다만, 목표치로 내려온 물가와 수출 관련 불확실성 및 더딘 내수 회복세, 둔화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

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명분이 충분하다는 인식도 맞는다.

10월 금통위에서 25bp 인하를 단행한 이후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 결과는 여러모로 시장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지를 두고 시장 관심은 크다. 한은은 지난 8월 내년 2.1%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1400원 부근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이 11월 마지막 주에서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두고 계속 평가 중이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는 주요 쇼핑 기간이고, 일본과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 트럼프 트레이드 모멘텀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시장 움직임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빙고 카드에 "암호화폐와 달러 매수, 해외자산 또는 녹색 자산 매도"가 적힌 사람은 모멘텀이 약해지더라도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비트코인BTC=은 온라인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점쳤던 10월 초보다 약 50% 상승한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달러지수=USD는 3.6% 올랐다.

트럼프의 골칫거리인 청정 에너지 부문은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가운데 iShares의 청정 에너지 상장지수펀드ICLN.O는 14% 가까이 하락했다. 멕시코 페소화MXN=는 4% 이상, 유럽 주식.STOXX은 3% 정도 내렸다. 트럼프 내각 지명자가 몇 명 더 발표될 예정이고 취임식까지 60여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돌발 변수 여지는 있다.

주식이 비싸다는 인식이나 지정학적 재료가 위험자산에 대한 현실적 점검을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도 있다.

⊙ G7 외무장관 회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쟁 1,000일이라는 암울한 고비를 넘기며 대규모 확산 위험 속 이번 주 7개국 외무장관이 만난다.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첨단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러시아는 지난 목요일 우크라이나 도시 드니프로에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33개월 된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은 랠리를 펼쳤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시장은 새로운 G7 공동성명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첫 임기 동안 G7 동맹국들과 정기적으로 충돌해왔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자들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전반적인 국방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헌법상 지출 상한선 해제와 같은 큰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 美 소매판매와 PCE

미국의 추수감사절 주간은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끝난다.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구매 습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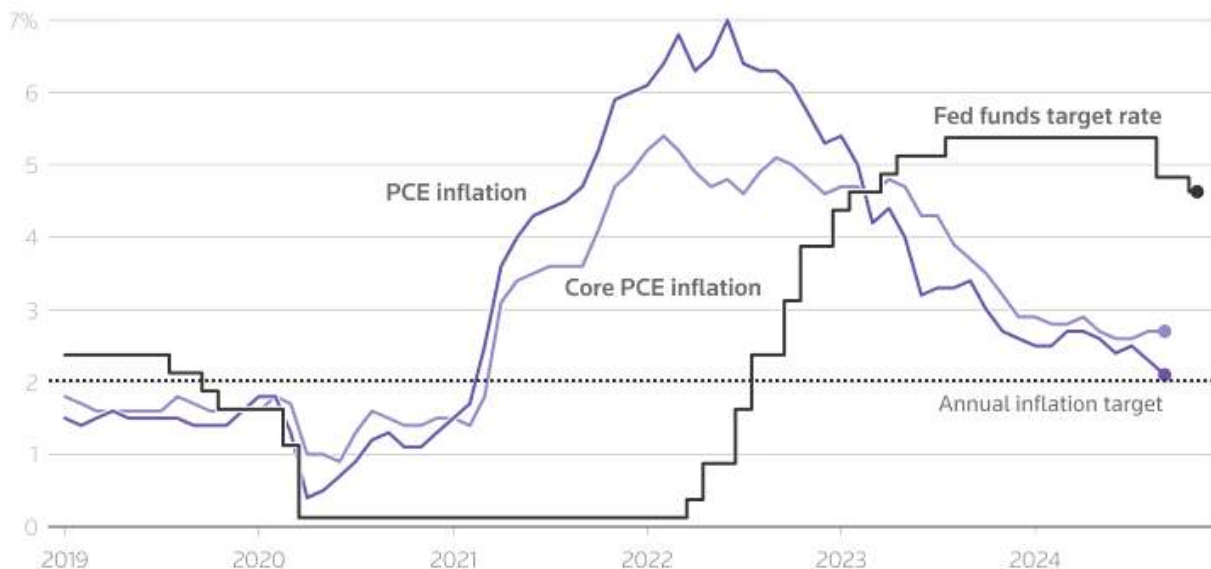
한 가지 우려스러운 신호로 지난 주 타깃TGT.N 주가는 분기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 후 하락했다.

오는 수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돼 인플레이션 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PCE지수는 전월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또 다른 호재가 될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할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nears target

Th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CE) index is nearing the Fed's 2% inflation target.



Note: The federal funds target rate is the midpoint of the official range. Core inflation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Nov. 20, 2024

⊙ 유로존 인플레이션

유럽중앙은행 전망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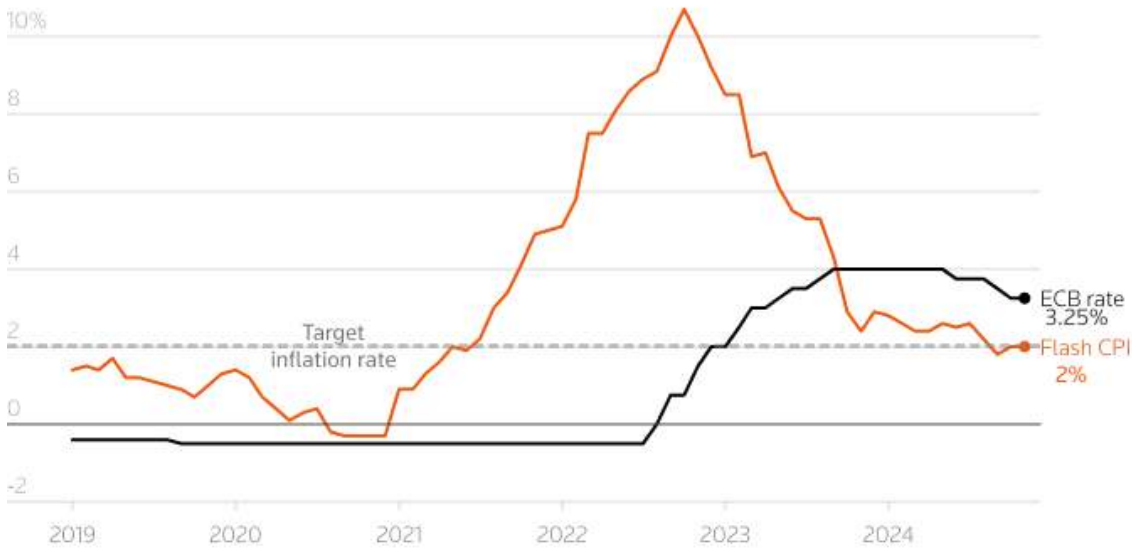
트레이더들은 12월에 ECB가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을 20%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의 40%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한편, S&P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검토한다. 최근 피치와 무디스는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취약한 집권 연정을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Euro zone flash November inflation data in focus

Latest inflation data comes just ahead of the ECB's December meeting



Source: LSEG Workspace | Reuters, Nov. 21, 2024 | By Vineet Sachdev

⊙ BOJ 인상 또는 인상 없음?

투자자와 일본은행(BOJ) 정책 입안자들은 오는 금요일 12월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도쿄 인플레이션 수치를 주시할 것이다.

BOJ 관계자들은 시장이 다음 인상 시점을 두고 계속 추측하게 하지만, 엔화 하락은 매파적인 BOJ를 조만간 촉발시킬 수 있다.

한 달 전 미미한 수준이었던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 약 54%까지 상승했다.

9월 말 이후 7% 이상 하락한 엔화는 달러당 155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이전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개입했던 영역에 진입했다.

당국자들은 엔화 약세에 대해 다시 입을 다물고 있고, 정치권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자민당은 최근 선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 대중의 지지를 되찾으려 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은 유권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소비지출 · PCE 주목

뉴욕, 11월25일 (로이터) - 이번 주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미국 소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구매자들이 물가 상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두 유명 소매업체 실적은 크게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화요일 월마트WMT.N는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치를 3회 연속 상향 조정한 반면, 타깃TGT.N은 수요일에 홀리데이 분기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고 그 결과 주가는 하락했다.

연말 쇼핑 시즌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애널리스트인 애비 로치는 물가 상승률이 2년 전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가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기는 쉽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압박받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돈을 예전만큼 쓸 수 없다고 계속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견조한 지출은 예상보다 강한 경제를 보여준 최근의 데이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투자자들은 경제 호조 신호를 환영하지만,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우려로 향후 몇 달 동안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위축되고 있다.

모간스탠리가 이달 초 발표한 약 2,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 2년보다 연말 쇼핑에 대해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약 35%가 이번 시즌에 1년 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올해 연말연시에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까다로운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 쇼핑 시즌은 올해 유통업체 주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장 가치 기준으로 업계 최대 업체 중 월마트는 70% 이상, 창고형 소매업체 코스트코 홀세일COST.O은 46%,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대기업 아마존AMZN.O은 30% 각각 상승했다.

다만, 다른 주식은 부진했다. 할인업체인 달러 제너럴DG.N과 달러 트리DLTR.O는 올해 각각 40%, 50% 이상 하락했는데,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층에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

깃 주가는 올해 들어 12% 하락했다.

호리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최고 경영자 척 칼슨은 "타깃은 현재 소매업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베스트바이BBY.N, 메이시스M.N, 노드스트롬JWN.N, 어반 아웃피터스URBN.O 등을 포함해 다른 소매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또한 오는 27일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이 지수는 전년비 2.3%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존스트레이딩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이클 오루크는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다. 단지 몇 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1월25일 (월)

⊙ 주요 일정 없음

11월26일 (화)

⊙ 한국은행: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11월27일 (수)

⊙ 한국은행: 2024년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07:40)

⊙ 기획재정부: 부총리 AI 반도체 혁신기업 현장방문 (09:45)

11월28일 (목)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통방) (09:0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 (11:10)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11:40)

⊙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11월) (13:30)

⊙ 한국은행: 2024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기획재정부: 2024년 12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 (17:00)

11월29일 (금)

- ⊙ 통계청: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간담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09:30)
-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국제수입 현황 (11: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11: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2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1월25일	22:30	미국	전미활동지수	10월		-0.28
11월26일	22: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10월		1.416M
11월26일	23: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9월		0.3%
11월26일	23: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9월	0.3%	0.4%
11월27일	00: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1월	111.6	108.7
11월27일	00:00	미국	신축주택판매	10월	0.725M	0.738M
11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10월		-3.5%
11월27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22일 주간		195.6
11월27일	22:30	미국	내구재주문	10월	0.5%	-0.7%
11월27일	22:30	미국	GDP 수정치	3분기	2.8%	2.8%
11월27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18일 주간	217k	213k
11월28일	00:00	미국	개인 소득 MM	10월	0.3%	0.3%
11월28일	00:00	미국	소비 MM	10월	0.3%	0.5%
11월28일	00:00	미국	PCE 물가지수 MM	10월	0.2%	0.2%

11월 28 일	00: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10월	-1.3%	7.4%
11월 28 일	18:00	유로 존	총유동성(M3) 증가율	10월	3.3%	3.2%
11월 28 일	18:00	유로 존	가계지출	10월		0.7%
11월 28 일	19:00	유로 존	기업환경지수	11월		-0.96
11월 28 일	19:00	유로 존	경기체감지수	11월	95.3	95.6
11월 28 일	19:00	유로 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1월		-13.7
11월 29 일	08:30	일본	도쿄 CPI	11월	2.1%	1.8%
11월 29 일	08:30	일본	실업률	10월	2.5%	2.4%
11월 29 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YY SA	10월		-1.8%
11월 29 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10월	2.2%	0.7%
11월 29 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11월		36.2
11월 29 일	19:00	유로 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11월	2.4%	2.0%
11월 29 일	19:00	유로 존	CPI NSA	11월		127.03
11월 29 일	23:45	미국	시카고 PMI	11월	44.7	41.6
11월 30 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11월		50.1
11월 30 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11월		50.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26일 (화)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1월6~7일 회의록 공개 (27일 오전 4시)

11월27일 (수)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10시)

11월28일 (목)

⊙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

11월29일 (금)

⊙ 영란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오후 7시30분)

(김지연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中 정부 자문단, 내년 경제 성장 목표 5 % 권고..더 강력한 부양책 촉구

베이징, 11월21일 (로이터) - 중국 정부 자문위원들이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올해와 비슷한 5.0% 정도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24년에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성장률을 내년에도 목표로 하겠다는 야망이 정부에 의해 확정된다면 무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점진적인 성장 둔화에 베풀하는 금융 시장을 놀라게 할 것이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6명의 자문위원 중 4명은 2025년 목표치를 약 5%로 선호했다. 한 명은 "4% 이상"을, 다른 한 명은 4.5~5% 범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주 로이터 여론 조사에서는 중국이 내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관세가 최대 1%포인트까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정부 자문위원들은 다음 달 최고 지도자들이 내년도 정책과 목표를 논의하는 비공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 그들의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의 단기 정책 의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인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연례 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자문단의 권고 사항을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해가 채택된다. 모든 계획은 입법 회기 전에 변경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문위원은 언론에 발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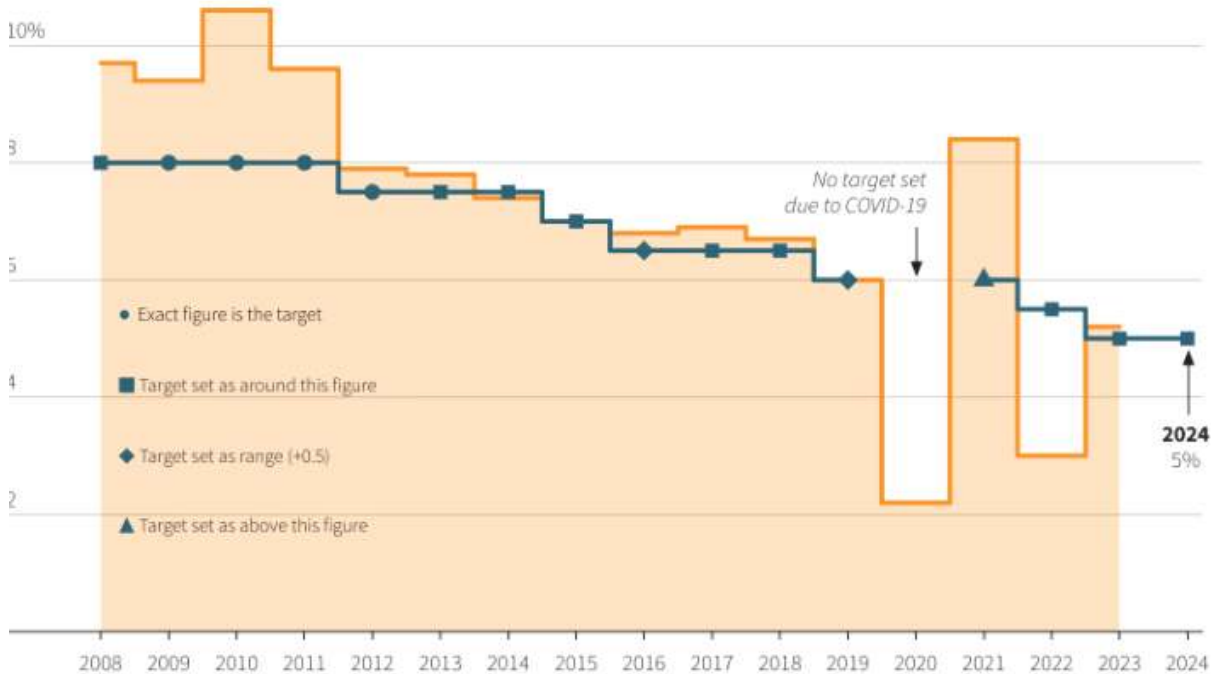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높은 성장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국이,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면, 큰 지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문위원 중 한 명이 약 5% 목표를 주장하는 정부 이코노미스트 위용당은 "내수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재정 적자가 올해 계획된 수준인 국내총생산 (GDP)의 3%를 "확실히 초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ina targets GDP growth of around 5% in 2024

Annual GDP growth target vs. actual GDP growth



Sources: NBS, Reuters reporting | Reuters, July 11, 2024 | By Kripa Jayaram and Kevin Yao

한 정부 자문위원은 "2035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에 약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더 많은 부양책?

이번 달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조 위안(1조4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직접적인 재정 부양책은 자제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트럼프가 첫 번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지켜보기를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란 포안 재정부장은 규모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더 많은 부양책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문단은 중국의 예산 적자가 내년에 GDP의 3.5~4%까지 급증할 수 있으며, 인프라 및 기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간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정책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와 가전제품, 자동차 및 기타 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보조금 제도의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 대규모 현금 바우처를 지급할 가능성은 낮

다고 자문위원들은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